

【논문】

## 철학실천의 위험성

—철학상담과 소크라테스대화의 경우—\*

박 병 기

【주제분류】 응용철학, 현대철학

【주요어】 철학실천, 철학상담, 소크라테스대화, 철학의 상업화

【요약문】 이 글의 목적은 1980년대 이래 구미 각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철학실천운동의 규범적 성격을 드러내고 그 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밝힘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철학실천은 상담 속에 잠들어 있는 철학을 깨워 우리 일상의 생활 속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을 복원하여 철학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철학의 도구화나 상업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장에 나온 철학상담은 소비대상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난점이 있고 그 자체 철학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해결과제를 남기며, 소크라테스대화를 활용한 조직컨설팅은 철학의 제도화를 다시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실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상업부문의 철학실천을 극소화하고 비상업부문, 즉 공공부문의 철학실천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필자가 잠정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철학상담사나 소크라테스축진사를 개인상담소나 컨설팅업체를 개설하여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철학상담이나 컨설팅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 이 글은 범한철학회와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0년 범한 철학회 봄철 학술대회(2010년 6월 5일, 조선대학교 의성관)에서 “철학실천: 철학상담과 소크라테스대화”란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논평해 주신 이진오 교수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I. 이끄는 말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실천철학 혹은 철학실천은 전통적으로 철학의 한 분야로 분류되는 인간의 실천에 관한 철학적 이론이나 그 이론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이래 구미 각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철학실천운동을 말한다.<sup>1)</sup>

1981년 독일의 아헨바흐(Gerd Achenbach)가 철학상담소를 개설하고 철학실천협회를 창립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철학실천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면서 철학상담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철학실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를 구성하여 철학상담에 대한 논의를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철학실천의 분야는 다양하지만,<sup>2)</sup> 그 형식은 원리적으로 둘 뿐이다. 왜냐하면 철학실천은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화는 상담자와 피상담자 사이의 일대일 대화이든지 아니면 대화참여자들 간의 대화이든지 둘 중 하나기 때문이다. 철학상담은 그것이 상담 영역에서건 조직컨설팅의 영역에서건, 대화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피상담자 사이의 일대일 대화다. 개별 상담만이 아니라 집단 상담이나 전속상담의 경우에도 그것은 변함없다. 이에 비해 조직컨설팅 분야는 소크라테스대화의 활용이 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sup>3)</sup> 소크라테스대화

---

1) 철학실천(philosophische Praxis, philosophical practice)이나 실천철학(praktische Philosophie, practical philosophy)이라는 번역어가 과연 적절한가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Praxis', 'practice'는 우리말의 실천·실용이라는 의미 이외에 영업활동, 개업, 진료(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철학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모든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실천이라는 단어로 이 말을 번역했을 때 그 중의적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실천철학의 제1차적 의미가 철학이론이 아닌 말 그대로 철학의 실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어는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우리말 '실천'에 새롭게 앞서 언급한 의미들이 추가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주 14)을 보라.

는 원래 철학방법론 혹은 철학교육방법론으로 개발되었지만 오늘날 특히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지역에서 조직컨설팅 분야 철학실천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철학실천이 표방하는 특성을 정리하고 그것이 안고 있는 난점과 해결과제는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그것의 실천에서 ‘사적 이익’과 ‘공공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철학실천을 규범적으로 정의하여 철학실천운동이 지향하는 것이 철학의 일상화, 철학의 도구화, 철학의 상업화라는 것을 드러낸다(II장). 다음으로 철학상담이 시장에 나왔을 때 만날 수 있는 난점과 그 해결과제를 지적하고(III장), 소크라테스대화가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루이스덴-로쿰(Leusden- Loccum) 논쟁을 소개하면서 상업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딜레마를 다룰 것이다(IV장).<sup>4)</sup>

## II. 철학실천의 규범적 정의

### 1. 철학의 일상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말하면, 철학실천운동(philosophical practice movement)은 상아탑 속에 갇혀 있는 철학을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내

- 
- 3) 여기서 말하는 소크라테스대화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벨손과 헥크만의 전통에 있는 소크라테스대화이다. 이에 관해서는 IV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 4) 철학상담이든 소크라테스대화가든 철학실천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철학실천의 이론적 규정이나 그것이 안고 있는 위험성과 난점은 실천의 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론적 논의는 공허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철학실천도 철학인 한, 철학을 바탕으로 실천에 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철학실천의 철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불가피하고도 불가결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욱이 철학실천이 아직 소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구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의 위험에 대한 반성적 논의에서 앞으로 우리 현실에서 올바른 방향의 철학실천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praktisch, practical) 철학을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철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철학으로써 도움을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실천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표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철학의 일상화다. 철학실천이나 철학상담에 관련된 문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강단철학(academic philosophy)이 실생활과 동떨어진 추상적 이론에 매몰되고 국가 제도에 편입되어 제도화되어 있음에 대한 비판이다. 그들이 볼 때 강단철학은 상아탑에 갇혀 이론적 통찰은 가득하지만 실제적 실천은 별로 없는 가분수 꼴이 되어있다. 매리노프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유형의 철학은 아주 추상적이고 자기 지시적이어서 실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할 말이 없다. 이런 철학은 실제 생활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sup>5)</sup> 그러나 철학은 원래 보람 있는 생활의 방편이었지 추상적 이론을 가르치거나 문헌을 주석하는 고루한 학문상의 과목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도(Pierre Hadot)와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과 같은 고전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여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철학자들이 철학을 삶의 기술(the art of living)로 보았다는 것을 강조한다.<sup>6)</sup> 철학실천운동은 다음 아니라 “그것을 도서관 서가에서 끌어내려 먼지를 털 다음 당신 손에 놓아 주는”<sup>7)</sup> 것이다. 다

5) 루 매리노프 지음 이종인 옮김,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고친다』 (해냄, 2000), (앞으로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고친다』로 표기하겠음), 24쪽.

6) 예를 들면 Peter B. Raabe, *Philosophical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raeger; Westport, 2001)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Philosophical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로 표기하겠음), 4~6쪽을 보라. 아도는 자신의 저서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 2장에서 서양철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논하고 3장에서 헬레니즘과 로마의 철학이 정신적 훈련이었다는 것을 소상하게 구명하고 있다. Pierre Hadot(trans. by Michael Chase), *Philosophy as a way of Life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Arnold I. Davidson* (Blackwell Publishing, 1995), 125쪽 참조.

시 말하면 철학실천운동은 철학을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담당했던 고대의 역할로 되돌리는 것이다.

2,500년 철학사에서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실생활에 관련되지 않은 철학은 없었다. 다만 실생활의 사유 속에서 개념적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추상화되고 이론화되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그 구체성과 현실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칸트의 정언명법은 우리 나날의 삶 속에 구현되어야 할 실생활의 규범이고, 헤겔의 국가는 우리가 한시도 떠나서 살 수 없는 현실적 삶의 기반이며, 키에르케고르의 고뇌는 상아탑 속에서가 아니라 그의 나날의 삶 속에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던가. 철학실천 운동은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고민과 경험에서 철학적 사유를 시작함으로써, 추상화되고 이론화된 철학을 우리 일상의 삶 속으로 다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 철학의 도구화

캐나다에서 철학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랍(Peter B. Raabe)은 에피쿠로스파와 세네카와 같은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지식 자체를 위해 지식을 탐구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지식을 덕이나 일상생활의 행복과 같은 더 높은 것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셔스터만(Richard Shustermann)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철학상담운동은 철학을 일상생활의 삶에서 본질적인 요소로서의 이러한 역할로 되돌리는 시도라고 주장한다.<sup>8)</sup> 네덜란드의 조직컨설턴트이자 소크라테스대화 촉진사인 에릭 부어스(Erik Boers)는 조직컨설팅에서 소크라테스대화가 “진리를 찾는 대신에 문제해결이나 고용인 조종과 같은 이차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우려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

7) 루 메리노프,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고친다』, 25쪽.

8) Richard Shustermann, *Practicing Philosophy. Pragmatism and the Philosophical Life* (New York: Routledge, 1997. 5) 참조. *Philosophical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4쪽에서 재인용.

장한다.<sup>9)</sup> 이들의 주장은 철학실천운동이 추구하는 것이 철학의 도구화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철학실천이 철학을 위한 철학,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철학교육을 철학실천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철학활동에서 철학적 지식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철학지식의 전수로서 이든 교양으로서 이든 항상 철학적 진리 자체를 위해 다루어지기 때문이다.<sup>10)</sup> 그러나 이 말은 개념상 그렇게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철학실천이 철학교육과 전혀 무관하다는 말은 아니다. 철학교육은 철학실천에 대단히 중요한 계기로 포함되어있으며, 철학실천에 항상 그것이 철학실천 자체의 목적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철학 지식이 그것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수단이 된다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소위 철학치료나 임상철학은 분류상 철학실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철학실천, 그 중에서도 특히 철학상담이 그 자체로 치료행위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철

---

9) Erik Boers, "On our duty to use the Socratic Dialogue in Business Organizations" in: Jens Peter Brune, Dieter Krohn (Eds.), *Socratic Dialogue and Ethics* (Lit Verlag Münster, 2005) (앞으로 이 책에 실린 논문에서의 인용은 *Socratic Dialogue and Ethics*로 표기하겠음.), 15~20 쪽 참조.

10) 이진남은 전공이건 교양이건 "각종 교육기관에서 철학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인 철학교육도 철학실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이진남, 『철학상담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기초이론 연구』, 범한철학회 편, 『범한철학』(2009 봄호) (앞으로 이 글에서의 인용은 『철학상담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기초이론 연구』로 표기하겠음), 358쪽 참조)한다. 물론 교육현장에서 철학실천도 있을 수 있다. 정규수업 외의 생활지도나 진로지도에서 이루어지는 철학실천이 그것이다. 정규수업에서도 철학상담이나 소크라테스대화 기법이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철학교육 자체가 곧 철학실천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학교 안에서의 철학교육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철학교육은 철학실천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도 철학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아카데미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철학교육이 아니라 집단철학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시민사회에서의 철학교육에 한정해서 철학실천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실천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철학실천사 또는 철학상담사들은 철학상담이 그 자체로 치료행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그럼에도 철학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이 치유된다는 점에서 철학상담에 일종의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철학실천에 철학상담과는 다른 범주로서 철학치료를 설정할 수 있는가? 철학치료랄지 혹은 임상철학이랄지 하는 개념이 사용되는 하지만, 이진남이 지적하듯이<sup>12)</sup> 적어도 철학실천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 개념의 사용을 회피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분류표에서 철학치료를 철학실천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일부 연구자들이 철학적 병 및 철학치료라는 개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철학상담치료가 사가 진단할 수 있는 마음의 병으로 세계관의 혼란과 주체성 상실, 적절한 지식의 부족이나 과다와 잘못된 인식, 가치관이나 윤리성 상실, 논리적 오류 등을 꼽고 있다.<sup>13)</sup> 철학적인 문제로 인해 생긴 마음의 병이 아니라 철학적 문제 자체가 철학적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소위 철학적 병이고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철학치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근한 예로 논리적 오류는 정상인이라도 누구나 범할 수 있다. 이성사용이 불가능해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성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는 적절한 정신 의학적·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성사용의 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다.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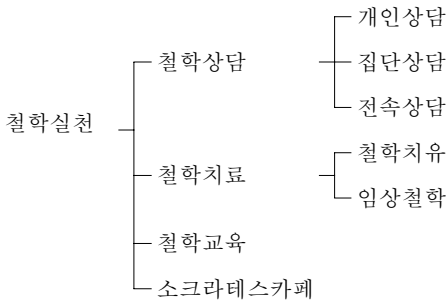
11) 이진남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 치료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는데, 철학상담은 내담자를 모두 정상인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치료에서 환자는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객체일 뿐인 데 반해, 철학상담은 내담자중심주의를 내세움으로써 내담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진남, 『철학상담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기초이론 연구』, 343쪽 참조.

12) 앞의 논문, 338~34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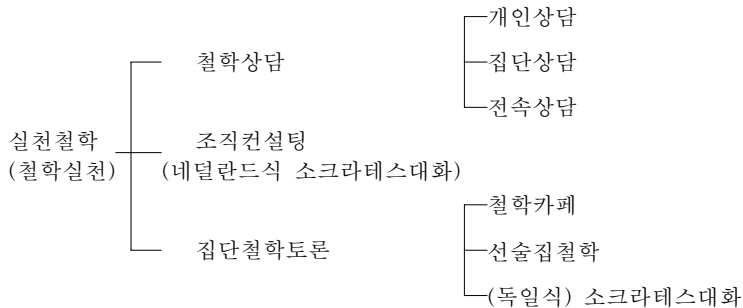
13) 이영의, 『인지체화치료 모형』, in: 『철학상담치료의 정체성과 방향 모색』, 67쪽 참조. 이러한 분류는 김영진, 『임상철학을 위하여』, in: 철학과현실사편, 『철학과현실』(1993) 및 『철학적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임상철학』(철학과현실사, 2004)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발견된다.

우리는 배워야 하고 먼저 배운 사람은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교육일 뿐이다. 만일 그러한 의미의 철학적 병이 있고 그에 대응하는 철학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철학교육의 위장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철학적 병이랄지 철학치료랄지 하는 개념은 은유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혼란에 빠질게 될 것이다.<sup>14)</sup>

14) 이진남은 다음과 같은 분류표를 제시한다. 이진남, 『철학상담의 어제와 오늘』, in: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철학상담치료의 정체성과 방향 모색』, (2009) (앞으로 이 글에서의 인용은 『철학상담의 어제와 오늘』로 표기하겠음), 22쪽 참조.



본문에서 제시한 근거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분류표는 제시한다. 집단철학토론은 규범적 정의를 하고자 할 때, 철학실천에 속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사회철학교육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실천철학을 한다고 의식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또한 철학상담과 조직컨설팅은 상업적 철학실천으로, 집단철학토론은 비상업적 철학실천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 철학의 상업화

철학실천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표명하지는 않지만 철학의 도구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철학은 상업화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주창하는 ‘Praxis’라는 말에 이미 함의되어있지만, 철학실천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make a living) 영업활동이 되고 철학은 상품이 된다. 철학실천운동이 추구하는 실천철학은 다시 말하면 직업철학(professional philosophy)이다.<sup>15)</sup> ‘practitioner’는 이론을 실천하는 실천가가 아니라 사무소를 개설하여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개업 전문직 종사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철학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인 ‘philosophical practitioner’는 철학이론을 현실에서 실현하거나 선현의 가르침에 따라 인격을 수양하는 의미에서 철학실천가가 아니라 사무소를 열고 자신이 아는 철학을 이용하여 타인의 심적 고통이나 철학적·실존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는 철학실천사이다. 이것은 철학실천운동의 지향점 중에서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매리노프는 자신의 저서 『철학실천』에서 75쪽에 걸쳐 한 장을 할애해서 철학실천의 마케팅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16)</sup> 철학상담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대화를 활용한 조직컨설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의 소크라테스대화 촉진사 요스 케셀스(Jos Kessels)는 에릭 부어스, 피터 모스터트(Pieter Mostert)와

---

15)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대화 촉진사들인 Patricia Shipley와 Fernando Leal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는 새로운 현상—응용철학의 성장, 실천철학 혹은 직업철학의 성장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 철학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Patricia Shipley/Fernando Leal, “The Perils of Practice: A Critical View of the Practical Turn in Contemporary Philosophy” in: *Socratic Dialogue and Ethics*, 118쪽.

16) 매리노프는 사무실을 개업하여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부터 홍보전단을 만드는 소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실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Lou Marinoff, *Philosophical Practice*, (Academic Press: San Diego) 2002), 249~324쪽 참조.

함께 1996년 ‘신 삼학과(The new trivium)’라는 사무소를 개설하여 조직컨설턴트로서 유료의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다.<sup>17)</sup>

물론 모든 철학실천이 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천철학이 자원 봉사 활동이나 비영리 활동일 수도 있으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훈련받은 철학자가 아니라도 철학에 흥미를 갖는 누구나 카페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장소나 산책길에서 철학토론을 만날 수 있는 런던의 ‘모두를 위한 철학(Philosophy for All)’운동과 같은 대중철학(popular philosophy)의 성장이 있다.<sup>18)</sup>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철학카페(café philosophique)라 부르고 영국에서는 선술집철학(pub philosophy)이라고 한다. 이런 종류의 활동은 훈련받은 철학자, 대개는 철학교수를 초청하여 그의 지도 아래 진행된다. 또한 시민아카데미를 열고 소크라테스대화를 할 수도 있다.

구미에서는 철학교수나 교사가 아니면서 철학을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실천철학자들의 수가 점점 증대하고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철학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을까?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그 속에서 개인의 고립화에서 그 원인(遠因)을 찾을 수 있겠지만,<sup>19)</sup> 쉬플리와 리얼은 다른 측면에서 흥미 있는 분석을 한다. 그들에 따르면, 영국의 대처 수상이 대학 철학과를 무용한 것으로 질타한 후 1983년 철학사학위를 가진 자가 철학을 가르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법령 개정의 직접적 영향은 영국의 7개 대학에서 철학과가 폐쇄되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 직장을 잃은 철학자들, 전공자들이 갈 곳은 시장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sup>20)</sup> 우리의 경우 근년에 들어 철학실천이 논의되고 관련학회가 창립된 것도 우리의 유사한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17) <http://www.hetnieuwetrivium.nl> 참조.

18) Patricia Shipley/Fernando Leal, 앞의 논문 119쪽 참조.

19) 김성진,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창립에 즈음하여』, in: 『철학상담치료의 정체성과 방향 모색』, 5쪽은 이러한 진단을 잘 보여준다.

20) Patricia Shipley/Fernando Leal, 앞의 논문 120쪽 참조.

고도로 경쟁적인 상업주의와 지칠 줄 모르는 소비가 지배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러한 기업마인드를 가진 철학자를 누가 비난할 수 있으며, 점증하는 중산층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철학자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철학에 스며든 과도한 상업주의의 폐해를 미리 살펴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Ⅲ. 철학상담의 난점과 해결과제

#### 1. 독자적 영역 확보의 문제

철학상담의 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의 고유한 대상 영역이 불명료하고 특히 심리치료와 중복된다는 점이다. 철학상담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내담자 스스로 풀어 나가도록 상담사가 도와주는 대화의 과정”<sup>21)</sup>으로 정의된다. 실존적 고민, 애정문제, 인간관계, 가족 간의 갈등, 직장 생활, 나이 들어 감, 죽음에 대한 불안, 뿐만 아니라 논리적 오류에서 오는 정서불안, 심지어는 유전에 관한 불안이나 고민<sup>22)</sup> 등 철학상담의 대상은 무한이 넓다. 이렇게 대상이 넓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기

21) 이진남, 『철학상담의 어제와 오늘』 in: 『철학상담치료의 정체성과 방향 모색』, 21쪽.

22) 유전상담(genetic counseling)을 말한다. 유전상담이란 유전성 질환이나 선천성 이상, 그 외의 유전자연구 및 검사 분야에서 환자나 그 가족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 및 철학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상담을 통해 환자나 그 가족이 자율적으로 방향을 결정하여 상황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부터 유전상담사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American Board of Genetic Counseling(ABGC)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약 2,500명의 유전상담사가 배출되었다. 현재 약 30개 대학에서 석사과정의 유전상담 훈련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www.abgc.net 참조. 유럽에서는 철학상담사가 유전상담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만 외연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흔히 마음의 병<sup>23)</sup>을 구분함으로써 철학상담의 대상을 한정짓고자 한다. 랍은 마음의 병(mental illness)이 서로 매우 다른 세 가지 요인과 관련되는 포괄적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① 정상적인 인지적·감정적 기능을 방해하는 신경생리학적 기능부전에 의해 내적으로 야기된 내생적 원인, ② 아동학대, 트라우마적 경험, 장기간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야기된 외인성 원인, ③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유라고 해야 할 미해결의 일상생활 문제의 결과로 고통 받는 괴로움과 혼란이 그것이다.<sup>24)</sup> 이 중 ①은 정신의학적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③은 상담이 필요한 생활 문제이다. 철학상담의 대상이 바로 이 영역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다.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도파민가설을 근거로 정신의학적 약물치료를 주장하는 정신의학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전통적으로 심리상담 혹은 심리치료의 대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약물과 상담 병행치료가 필요하다. 매리노프는 ②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을 철학상담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준 경험을 보고하지만,<sup>25)</sup> 실제로 이 영역의 환자를 철학상담을 통해 상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영역군의 환자들은 이성적 대화 진행이 용이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랍은 철학상담을 실천할 경우 ③의 영역과 ②의 영역을 구별하여 ②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6)</sup>

23) 매리노프는 철학이 관여하는 것은 마음의 병(disease)이 아니라 다만 불편함(dis-ease)일 뿐이라고 한다. 루 매리노프,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고친다』, 13쪽 참조.

24) Peter B. Raabe, *Issues in philosophical counseling* (Praeger Publishers, 2002)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Issues in philosophical counseling*로 표기하겠음), 17~18쪽 참조.

25) 그래서 철학상담에 관한 매리노프의 첫 저서명이 *Plato not Prozac*(『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고친다』)이다.

26) Peter B. Raabe, *Issues in philosophical counseling*, 18쪽 참조. 이영의는 마음의 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몸이 원인이 되어 마음에

그러나 문제는 ②와 ③의 영역을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결하지 못한 일상생활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담자는 그러한 고통이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철학적·인지적 이유에서 인지 알지 못할 것이며, 알았다면 아마 상담사를 찾아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MBTI 성격유형 심리검사와 비슷한 철학상담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한, 철학적인 이유로 당하는 일상생활의 고통을 유형화해서 ②의 영역과 구별하고 ③의 영역 안에서의 종적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다 해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철학적인지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더구나 실존주의 심리치료, 로고테라피(Logotherapy),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REBT)와 같은 심리치료에서의 인지적 접근은 이미 1950년대부터 철학상담이 고유한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도하고자 하는 작업을 훨씬 정교한 방법으로, 그리고 훨씬 효과적 방법으로 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철학상담과 심리상담이 대상 영역에서 완전히 중복된다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이진남은 심리상담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이지만, 철학상담은 내담자를 비정상 혹은 환자로 취급치 않고 다만 그 불편함을 덜어주어 스스로 치유되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데 차이가 있으며, 철학상담사

---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둘째 마음이 원인이 되어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셋째 마음이 원인이 되어 마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첫째 유형의 마음의 병은 정신병으로 분류되는데,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할 수 있으며, 둘째 유형의 마음의 병은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경색증의 유발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유형의 마음의 병은 세계관이나 주체성이 상실되거나 혼란되었을 때나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이영의는 이 중 둘째 유형과 셋째 유형이 철학상담치료의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셋째 유형의 마음의 병이 철학상담치료의 고유한 대상이라고 한다. 이영의, 『인지체화치료 모형』, in: 『철학상담치료의 정체성과 방향 모색』, 64~65쪽 참조. 이러한 구분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데, 무엇보다 이 구분에서는 정신분석(psychoanalysis)이나 심리치료(psychotherapy) 혹은 심리상담의 영역이 없다는 것이다. 심리치료가 모두 정신의학치료(psychiatry)로 환원된다는 것인지는, 아니면 심리치료의 영역으로 간주해 왔던 것을 철학상담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는 특정한 방법론으로 내담자를 진단, 처방, 치료하기 보다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고 자신의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발전시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sup>27)</sup> 그렇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철학상담이 심리치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 치유되는 것을 도와준다는 철학상담보다 확실히 치료해준다는 심리상담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철학상담사의 장점은 “철학상담사가 실존적, 윤리적, 정치적, 그리고 논리적 문제를 토론하는 데 있어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사 혹은 치료사보다 더 유능하다”<sup>28)</sup>는 데 있는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철학상담운동의 성공 여부는 심리치료와 철학상담을 구별하게 해주는 독자적 영역을 어떻게 확보하고 독자적 방법론과 노하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형이상학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구해질 수는 없는 문제이다. 앞으로 철학상담의 실천이 진행되면서 경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상담은 매우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상대한다. 또한 상담사는 내담자와 매우 사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사는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완숙되고 건강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임상심리학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측면에서 철학상담은 임상심리학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둘 간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철학의 왜곡

다음으로 철학상담이 안고 있는 문제는 상업화로 인해 철학이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매리노프와 함께 제1회 국제철학실천

27) 이진남, 「철학상담의 어제와 오늘」 in: 『철학상담치료의 정체성과 방향 모색』, 23쪽.

28) Peter B. Raabe, *Issues in philosophical counseling*, 19쪽.

학술회의를 주도했던 란 라하브(Ran Lahav)의 경고는 귀 기울일 만하다.<sup>29)</sup> 철학상담은 철학을 수단으로 해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고 그것을 대가로 철학자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철학상담의 목표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철학은 오늘날 시장경제의 소비자주의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진통제를 파는 제약회사처럼 철학자는 내담자의 욕구에 알맞게 맞추어진 상품의 공급자가 된다.

이것이 가져다 줄 결과는 사회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해야 할 철학이 사회 속에서 또 하나의 선수(player)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와 소비자주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철학은 이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철학상담사는 결국 자신이 시장에 내놓은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고 애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담사 자신을 시장의 수요에 적응시킨다는 것이고 내담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적응시킨다는 것이다. 철학자는 더 이상 사람들을 흔들며 깨워 그들을 자만심과 근시안적 편견에서 빠져 나오게 한, 그리고 사회가 듣기를 원치 않는 것을 사회를 향해 외친 소크라테스나 루소나 니체가 아니라, 벌어들인 돈을 쓸 기회를 노리는 길들여진 직업인일 뿐이다.

진정한 철학은 우리가 이전에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단념하고, 자기만족과 안전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가치에 등을 돌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듬으로써 명백한 것에 의문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반대로 일상적 문제의 해결과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철학상담사는 자신이 상담해 주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 다시 말하면 동굴 속으로 행복하게 돌아가도록 부추긴다.

철학실천운동, 철학상담운동이 등장한 후 철학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하나의 길은 정상화되고 정상화하는 철학자로서의 실

29) 라하브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철학실천과 (철학상담)의 의미에 대한 반성 (REFLECTIONS ON THE MEANING OF PHILOSOPHICAL PRACTICE (And philosophical counseling))이라는 장문의 글을 연재하고 있다. 아래의 서술은 라하브의 그 글에서 시사 받았다.

천사에 이르는 길인데, 여기서 철학은 직업 훈련과 조직 그리고 돈을 내는 내담자를 가지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는 전문 직종이다. 또 하나의 길은 참된 구도자의 길이고 플라톤적 에로스의 길인데, 여기서 철학자는 지혜를 찾는 사람이며, 정상적이고 명백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흔들어대는 전복하는 질문자다.

라하브는 지난 20년 동안 철학상담사들이 지나치게 정상화의 방향으로 나갔다고 평가한다. 철학상담사들은 순진하게도 그들이 참된 철학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이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큰 실수라는 것이 라하브의 진단이다.<sup>30)</sup> 이제 철학상담이 막 소개되고 그 실천이 논의되는 우리 실정에서 이 두 길이 절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것을 흔들어대는 전복적 질문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 편안함을 갈구하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한국에서 철학상담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은 20년 앞서 철학상담에 종사하다 이제 반성의 거울 앞에 서있는 선배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 IV. 소크라테스대화 : 상업화의 딜레마

### 1. 레오나르트 넬슨과 소크라테스대화

소크라테스대화는 신칸트주의자인 독일의 철학자 레오나르트 넬슨(Leonard Nelson, 1882~1927)이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기(*philosophieren*)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창안한 것이다.<sup>31)</sup> 1927년

30) <http://www.trans-sophia.net/115845/Reflections-PP-a> 참조.

31) 넬슨은 자신의 소크라테스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1922년 12월 11일 괴팅겐교육학회에서 “Die sokratische Methode”라는 이름의 강연에서 처음으로 시도한다. 이 강연은 같은 제목으로 『프리스학파논총 *Abhandlungen der Fries'schen Schule*, V (Göttingen, 1929), Bd. I에 실려 있다. 영어본은 Leonard Nelson, “The Socratic Method” in: Leonard Nelson (Translated by Thomas K. Brown III), *Socratic Method and Critical*



넬슨이 죽고 난 후 그의 제자들은 비판철학촉진협회(Society for the Furtherance of the Critical Philosophy, SFCP)와 소크라테스화촉진사협회(Gesellschaft für Sokratisches Philosophieren, GSP)를 창설하여 소크라테스대화를 보급하고 있다.<sup>32)</sup> 이들에게 소크라테스대화는 자신들의 비판철학, 즉 윤리적 사회주의이념을 보급하는 운동이고 수단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대화 촉진사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전통이었다.<sup>33)</sup> 오늘날 소크라테스대화는 이들의 적극적인 운동에 힘입어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북유럽 각국, 동유럽, 남미, 일본 등지에서 기초·중등·대학교, 시민사회교육 현장의 철학교육 방법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sup>34)</sup>

소크라테스대화에서 실천사는, 대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Leiter’, 영어로 대화를 촉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facilitator’가 사용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화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고

*Philosophy Selected Essays* (New York, 1949)가 있다.

거기서 넬슨은 이렇게 말한다. “소크라테스적 방법은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기를 가르치는 기술이며, 철학자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철학자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Dieter Birnbacher und Dieter Krohn(Hrg.), *Das sokratische Gespräch* (Philipp Reclam jun. Stuttgart, 2002), 21쪽.

- 32) 소크라테스대화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에 관해서는 박병기,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이론과 실제』(대한철학회 편, 『철학연구』 제113집, 2010), 박해용, 『레오나르도 넬슨의 소크라테스 대화법』(사회와 철학회, 『사회와 철학』, 2010)을 보라.
- 33) 넬슨은 비교적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그가 창설한 모든 단체에서 무료 수로 일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 봉사하면서, 그리고 윤리적 사회주의에 봉사하면서 검약하고 윤리적인 생활을 하도록 주문했다. Patricia Shipley/Fernando Leal, 앞의 논문, 125쪽 참조. 다만 대화참여자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숙박비와 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는 부담해야 한다.
- 34) 학교교육 현장에서 소크라테스대화 경험에 대한 보고와 방법론에 관해서는 Rene Saran and Barbara Neisser(edited by), *Enquiring Minds Socratic dialogue in education* (London, First published 2004, reprinted 2006)을 보라. 시민사회교육 현장에서 세계 각국의 소크라테스대화 경험에 대한 보고는 Patricia Shipley, Heidi Mason(Eds.), *Ethics and Socratic Dialogue in Civil Society* (New Brunswick(U.S.A.) and London(U.K., 2004)를 보라.

오직 대화참여자들이 주어진 ‘소크라테스 물음’<sup>35)</sup>을 주제로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 과정에서 대화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구체적 사례로부터 역행적 추상(regressive abstract)<sup>36)</sup>을 통해 행위결정의 일반적 원리에 도달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대화는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있고, 촉진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대화참여자가 지켜야 할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대화에서 참여자들의 모든 대화는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이와 같이 주어진 문제를 오직 대화참여자 개개인이 어떤 권위나 선입견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의 힘만으로 해결하도록 장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대화는 자율적이고 배우는 사람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며, 전형적인 구성주의적 방법론이다. 소크라테스대화를 통해 얻어진 추상적 개념이나 일반적 도덕원리는 우리의 구체적 일상적 삶과 괴리되지 않으며 실질적 생활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38)</sup>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대화는 철학의 일상화를 추구하는

35) 어떤 물음이 소크라테스적이며, 어떻게 소크라테스 물음을 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Kopferwerk Berlin(Jens Peter Brune, Ulrike Gromadecki, Horst Gronke, Bärbel Jänicke, Beate Littig, Volker Rendez, Sabir Yücesoy), “The Methodology of Socratic Dialogue Creating Socratic Questions and the Importance of being Specific” in: Patricia Shipley, Heidi Mason(Eds.), *Ethics and Socratic Dialogue in Civil Society* (New Brunswick(U.S.A.) and London(U.K.), 2004)를 보라. 박병기, 앞의 논문, 122~125쪽 참조.

36) 역행적 추상과 추상의 과정에 관해서는 Kopferwerk Berlin(Jens Peter Brune, Ulrike Gromadecki, Horst Gronke, Bärbel Jänicke, Beate Littig, Volker Rendez, Sabir Yücesoy), “The Methodology of Socratic Dialogue Regressive Abstraction-How to ask for and find philosophical knowledge” in: Jens Peter Brune, Dieter Krohn (Eds.) *Socratic Dialogue and Ethics* (LIT VERLAG Münster, 2005)를 보라.

37) 소크라테스대화의 규칙에 관해서는 “Appendix 2 Socratic Dialogue - Procedures and Rules” in: *Enquiring Minds Socratic dialogue in education*, 171~172쪽을 보라.

38) 박병기, 앞의 논문, 131쪽 참조

철학실천운동의 이념과 일치한다.

## 2. 루이스덴-로쿰 논쟁

네덜란드에 소크라테스대화가 소개된 것은 1980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온 네덜란드의 소크라테스대화 촉진자들은 소크라테스 촉진자 네덜란드 네트워크(Dutch Network of Socratic Facilitator, DNSF)를 조직하여 그 때까지 주로 장기프로그램으로 진행되던 소크라테스대화를 단기 프로그램으로 변형하여 운용했으며 소크라테스대화를 기업컨설팅의 한 형식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네트워크는 특히 여러 측면의 소크라테스대화의 방법론을 연구하여 소크라테스대화를 위한 새로운 장치와 촉진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이것은 모두 소크라테스대화를 기업컨설팅의 한 형식으로 개발해 온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sup>39)</sup> 이리하여 소위 네덜란드식 소크라테스대화가 탄생했다. 원래의 소크라테스 대화와 네덜란드식 소크라테스 대화의 본질적 차이는 단순히 대화 시간의 장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sup>40)</sup> 대가를 받지 않고 철학보급 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되던 소크라테스대화가 이제 특정한 단체나 기관, 특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이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네덜란드식 소크라테스 대화의 선구자 중 하나인 요스 케셀스(Jos Kessels)는 1997년 자신의 저서 『시장에 간 소크라테스. 기업에서의 철학』<sup>41)</sup>에서 시간을 단축한 대화법을 조직에 적용한 자신의 경험을 서술했다. 케셀스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자신의 철학

39) 박병기, 앞의 논문, 129쪽 참조

40) 매리노프는 두 소크라테스 대화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Lou Marinoff, *Philosophical Practice*, 129쪽 참조.

41) Jos Kessels, *Socrates op de markt. Filosofie in bedrijf* (Amsterdam/Mechelen: Boom, 1997). 이 책은 번역되어 독일에서도 출판되었다고 하지만 확인하지 못 하였다. 다만 케셀스가 운영하는 “신 삼학과” 홈페이지에 이 책 1장과 2장이 영어로 번역되어 올라 있다.

<http://www.hetnieuwetrivium.nl/page/publications> 참조.

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기업에서 소크라테스대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철학이 실천 속에서 사용될 것을 의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케셀스의 견해는 1998년 네덜란드 루이스덴에서 열린 제2차 SFCP 국제학술회의(“소크라테스대화: 네덜란드의 경험”)와 2000년 독일의 로쿰에서 열린 제3차 국제학술회의(“윤리학과 소크라테스대화”)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독일식 소크라테스 대화와 네덜란드식 소크라테스 대화 사이의 논쟁은 넬슨-헵크만 대화의 순수한 형태와 덜 순수한 형태와 관련되어있으며, 장기프로그램과 단기프로그램과 관련되어있다. 이것들은 거칠게 말하면 각각 전통적인 독일식 접근과 실용주의적인 네덜란드식 접근에 대응한다. 하나는 더 플라톤적이고 가치론적인 합리성을 반영한다. 다른 하나는 베버의 도구주의적 합리성, 기술주의와 경영컨설팅을 생각하게 한다.<sup>42)</sup>

소크라테스대화의 상업화에 대한 정통 넬슨주의자들의 반응은 매우 완강한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보고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주제가 윤리에 관한 것이거나 윤리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라도 소크라테스대화의 실천은 원래 윤리학적이다. …… 소크라테스 대화에 있는 이러한 윤리적 요소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성을 변형하고 개조했을 때라도 보존되어야 할 핵심이다.”<sup>43)</sup>

말하자면 시간을 짧게 하여 소크라테스대화를 단축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윤리적 사회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소크라테스대화의 변형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윤리적 사회주의와 상업주의는 어울리지 않는 쌍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케셀스는 “소크라테스는 어떤 질문을 했을까? 조직에서의 대화와 윤리학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소크라테스가 조직의 경영자

42) 논쟁의 추이에 관해서는 주로 Patricia Shipley/Fernando Leal, 앞의 논문 124~126쪽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43) Stan Van Hoof, “Report from Loccum” in: *Practical Philosophy*, 2000, 3(3), 76쪽. Patricia Shipley/Fernando Leal, 앞의 논문, 124쪽에서 재인용.

나 리더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비록 그의 최종 목표는 항상 진리, 선, 탁월성 등등 일지라도, 결코 윤리적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말들을 피하고 그들의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응수한다. 말하자면 조직컨설팅에서 윤리학이 직접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다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윤리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sup>44)</sup>

나아가 에릭 부어스는 오늘날 우리 모두는 기업 조직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에서 소크라테스대화를 사용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의무라고까지 말한다.<sup>45)</sup> 부어스에 따르면 넬슨과 헵크만이 개발한 비판철학에 바탕을 둔 소크라테스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철학하기 (philosophizing)의 참된 방법이고 성과 있는 방법이다.<sup>46)</sup> 소크라테스 대화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동시에 그들이 함께 생각하도록 고무한다. 소크라테스물음은 항상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깊이 관련되어있으며, 근본적이고 일상생활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관련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와 씨름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얻어진 통찰을 실천하도록 강제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도록 강제한다. 소크라테스대화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 철학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sup>47)</sup>가 있다. 만일 철학자들이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독단적인 경영컨설턴트들의 손에 맡겨질 것이다. 이들 이 시대의 소피스트들은 모두 어떤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라도 답변할 수 있는 돈이 최고라는 보편적인 답을 준비하고 있다.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어떤 시도도 뜬구름과도 같은 성공이야기 속에 질식되어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좋은 삶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은 경영자들과 고용인들이 발전시킨 실천적 지혜에

44) Jos Kessels, “What Questions would Socrates ask? On Dialogue and Ethics in Organization” in: *Socratic Dialogue and Ethics*. 36~41쪽 참조.

45) Erik Boers, 앞의 글, 17쪽 참조.

46) 앞의 글, 18쪽 참조.

47) 앞의 글, 18쪽.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부어스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조직 속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온갖 종류의 딜레마를 다루면서 경험한 것들에서 배울 기회”<sup>48)</sup>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쟁은 가라앉았지만, 논쟁의 결과 네덜란드식 소크라테스대화는 점점 더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소크라테스주의자들은 소크라테스대화 촉진사와 철학상담을 위한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성과로 영국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소크라테스주의자들에 의해 네덜란드철학실천협회 영국지부로서 컨설턴트철학자회(Society of Consultant Philosophers, SCP) 결성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정통 넬슨주의 내부에서도 소크라테스대화의 조직에서의 상업적 사용을 인정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이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호르스트 그론케(Horst Gronke)는 소크라테스대화에 철학적·윤리적 주제를 다루는 소크라테스대화와 경영이나 이윤창출을 직접 다루는 유사-소크라테스대화(Para-Socratic Dialogue) 외에 직접적으로 철학적이지는 않지만 이윤창출에 관련되지는 않는 소크라테스-지향-대화(Socratic-Oriented Dialogue)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직에서 소크라테스대화를 이용할 때, 유사-소크라테스대화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지향-대화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49)</sup> 소크라테스대화의 자기동일성을 형성해 온 비판철학자 넬슨의 이념은 퇴색되고 상업주의가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

48) 앞의 글, 19쪽.

49) Horst Gronke, “Socratic Dialogue or Para-Socratic Dialogue?” in: *Socratic Dialogue and Ethics*, 24~35쪽 참조. “넬슨의 충실한 사도”인 그론케는 실제로 베를린대학 한스요나스연구소(Hans Jonas Institut) 산하 Kopfwerk-Berlin 팀의 일원으로 네덜란드들의 드리스 불러(Dries Boele)와 함께 조직 컨설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 10월 20일 전남대학교 강연 및 필자와의 면담.

### 3. 조직컨설팅의 딜레마

철학상담의 경우 상업화가 상업화 자체에 한정되는 문제였지만, 조직에서 소크라테스대화의 활용은 상업화 문제를 넘어 철학실천이 원래 극복하고자 했던 철학의 제도화 문제를 다시 야기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그들의 상품을 어떤 기업에 판매하기를 바라는 소크라테스컨설턴트는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대화는 팀워크를 높이는 훈련을 하는데, 그것은 당신 회사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대화는 상호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당신 조직 안에서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유익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대화는 직원들의 가치태도를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것은 그들의 동기 부여와 참여의식 신장에 좋을 것이다 등등. 간단히 말하면 그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 소크라테스컨설턴트는 그것이 갖는 도구적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말은 거짓이 아닐 것이다. 아마 소크라테스대화는 관료주의적인 문제를 반성하지 않고 직원들 사이에 합리적 행동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조직에서 이런 종류의 목표를 이행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sup>50)</sup>

그러나 소크라테스컨설턴트는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컨설턴트의 상품을 사기로 결정한 기업경영자에게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소크라테스물음을 대화의 주제로 설정할 수 있겠는가? 대화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철학적·가치론적으로 반성하고 윤리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행위결정의 원리를 이끌어 내는 질문을 대화를 통해 답변하도록 소크라테스대화를 조직할 수 있겠는가? 조직에서의 소크라테스대화는 결국은 기업경영자나 조직의 리더의 의중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대화 컨설팅에서 철학은 이제 기업이나 기관·단체의 건강한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이것은 철학이 노무관리에 동원된 임상심리학이나 제국주의적 침략

---

50) 앞의 글, 29~30쪽 참조.

에 동원된 인류학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의미에서 철저히 제도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를 위한 제도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기업을 위한 제도화가 등장하게 된다. 임상심리학이나 인류학의 경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자기모순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철학은 다르다. 소크라테스대화가 이념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비판철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배신이고 자기모순이며, 강단철학의 제도화를 비판하고 등장한 철학실천운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직컨설팅 자체가 하나의 딜레마라는 것을 보여준다.<sup>51)</sup>

## VI.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고 상업화가 가져다 줄 폐해도 있지만, 철학실천은 상아탑 속에 잠들어 있는 철학을 깨워 우리 일상의 생활 속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데 공헌할 것이며, 무엇보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을 복원하여 철학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철학실천운동의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철학의 도구화나 상업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장에 내놓은 철학상담은 소비대상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난점이 있고 그 자체 철학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해결과제가 남는다. 한편으로 원래 철학하기의 방법, 철학교육의 방법으로 시작된 소크라테스대화를 활용한 조직컨설팅은 철학의 제도화를 다시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실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상업부문의 철학실천을 극소화하고 비상업부문, 즉 공공부문의 철학실천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철학상담사나 소크라테스족

51) 이러한 착상은 Patricia Shipley/Fernando Leal, 앞의 논문 중 127~133쪽 'Whither Practical Philosophy? The Institutionalisation of Psychology and Philosophy'에서 시사 받은 것이다.



진사가 개인상담소나 컨설팅업체를 개설하여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철학상담이나 컨설팅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철학실천사로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에 복지정책 차원에서 집단철학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철학카페나 철학토론광장을 정기적으로 개설하도록 하여 철학을 사회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sup>52)</sup>

또 하나 덧붙일 것은 학교나 시민사회에서 철학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철학실천운동의 긍정적 계기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철학실천은 철학교육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적 초석을 제공한다. 철학상담은 그 자체 철학교육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철학에 관한 대화가 계기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계기가 철학교육을 추상적 이론의 전수가 아니라 개개인의 고통으로부터, 개개인이 나날의 삶에서 당하는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대화에서 철학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추상적 이론이나 철학사적 지식이 아니라 철학하기의 방법을 가르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은 다음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끝>

투 고 일: 2010. 07. 30.  
 심사완료일: 2010. 08. 13.  
 게재확정일: 2010. 08. 14.

**박병기**  
 전남대학교

52)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 철학실천의 공공적 이용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주입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철학상담이나 소크라테스대화는 원리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특정 철학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장치로 이용될 수 없다. 다만 철학실천운동이 애초 표방하면서 출발했던 철학의 제도화에 대한 반대가 어떤 의미로든 손상될 위험을 차단하면서 철학실천을 공공부문에서 실천하기 위한 세심한 사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영진, 『철학적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 임상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 박병기,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이론과 실제』, 대한철학회 편, 『철학연구』 제113집, 2010.
- 박해용, 『레오나르도 넬슨의 소크라테스 대화법』, 사회와 철학회 편, 『사회와 철학』, 2010.
- 이진남, 『철학상담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기초이론 연구』, in: 범한철학회 편, 『범한철학』, 2009 봄호.
-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철학상담치료의 정체성과 방향 모색』, 2009.
- Brune J. Peter, Krohn Dieter(Eds.), *Socratic Dialogue and Ethics*, Lit Verlag Münster, 2005.
- Hadot, Pierre(trans. by Michael Chase), *Philosophy as a way of Life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Arnold I. Davidson*, Blackwell Publishing, 1995.
- Heckmann Gustav, *Das sokratische Gespräch: Erfahrungen in philosophischen Hochschulseminaren*, Hannover, Hermann Schroedel Verlag, 1981.
- Marinoff, Lou, *Philosophical Practice*, Academic Press: San Diego 2002.
- \_\_\_\_\_, 이종인 옮김,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고친다』, 해냄, 2000.
- Nelson, Leonard, “Sokratische Methode” in: Dieter Birnbacher und Dieter Krohn(Hrg.), *Das sokratische Gespräch*, Philipp Reclam jun. Stuttgart, 2002.
- Raabe, Peter B., *Issues in philosophical counseling*, Praeger Publishers, 2002.
- \_\_\_\_\_, *Philosophical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raeger;

Westport, 2001.

Saran, Rene and Neisser, Barbara(edited by), *Enquiring Minds Socratic dialogue in education*, London, First published 2004, reprinted 2006.

Shipley, Patricia and Mason Heidi(Eds.), *Ethics and Socratic Dialogue in Civil Society*, New Brunswick(U.S.A.) and London(U.K.), 2004.

<http://www.abgc.net>

<http://www.hetnieuwetrivium.nl/page/publications>

<http://www.trans-sophia.net/115845/Reflections-PP-a>

ABSTRACT

The Peril of Philosophical Practice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Socratic Dialogue—

Park, Byeong-Ki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basic groundwork for averting a peril that Philosophical Practice might have by defining the normative nature of the Philosophical Practice Movement being actively developed in Europe and America since the 1980s, and for identifying and solving its problems and tasks. Philosophical Practice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it seeks to restore philosophy to its role as a way of life by bringing it down from its ivory tower to operate as a living force in daily life. But philosophical counseling which emerged as a crass instrumentalism or commercialization of philosophy is problematic due to the uncertainty of whom it targets as a consumer, and opens up the question of how to avoid the danger of distorting philosophy. Organized clinical consultations using Socratic dialogue contain the risk of bringing about yet another institutionalization of philosophy.

To solve this problem, the desirable direction for Philosophical Practice is to greatly minimize its market sector, and maximize to every extent its non-market, or public, sector. The writer provisionally advocates that one way to achieve this is to forego the establishing of philosophical counseling companies and companies for the

promotion of Socratic facilitator as counseling centers or consulting firms in order to use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consulting as a part of business activities, but to receive support from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nd employ it as a state-subsidized project.

**Keywords:** Philosophical Practice, Philosophical Counseling, Socratic Dialogue, Commercialization of Philosophy.